

---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모두말씀

---

2020. 11. 2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오늘 제2기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는 대전환기에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고 기대가 큼니다.

## II.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대응과제

---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서 외형적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GDP에서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9년 5%에서 '19년 5.6%로 증가하였고,

자본시장 시가총액 규모도 글로벌 12위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디지털 혁신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경영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미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충당금 확충 등 선제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서비스의 출현에 대응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객의 신뢰와 경험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등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금융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높은 진입장벽을 통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제조와 판매가 결합되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는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III. 경쟁도 평가 계획

---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출범하는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내 보험업 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평가업을,  
하반기에는 은행·신용카드업을 평가하는 등  
속도를 내었으면 합니다.

## IV. 맺는 말씀

---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정부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당사자인 업계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의 방향성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은 벌써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더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융합과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a 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소비자 보호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평가와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건전성, 수익성,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